

효고현 국제교류협회(HIA)가 소개하는 효고의 국제교류 정보지

ComeHIA

カムヒア

2023.9
Vol. 106

청소년 × 국제교류

젊은 세대의 교류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



HIA는 **청소년 교류활동**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IA에서는 "교류인구 확대"와 "인재육성의 공헌"을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써 청소년 교류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4년 만에 실시된 "옥스브리지 영어 여름 캠프"를 소개합니다.

4년 만의 옥스브리지 영어 여름 캠프 개최



옥스브리지 영어 여름 캠프는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생을 호고현 내 학교에 파견하여 영어회화 수업과 교류 이벤트 등의 국제 교류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윌프씨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올리버씨를 모셨습니다.

7월 20일에는 환영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이 환영파티에는 파견 학생을 수용하는 현내 대학교와 단체, 호스트 패밀리 등의 관계자분들이 참가하여 4년 만에 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었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옥스브리지 학생과 참가자는 일본의 여름을 나타내는 유카타를 착용하여 다 함께 봉오도리(일본의 명절 축제에서 추는 춤)를 추고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고베여자대학교, 고베대학 부속 중등교육학교, 간사이 복지대학교, JETS Academy, 다카라즈카시 국제교류협회에서 영어 수업과 문화 소개 및 교류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영국문화와 왕실에 대한 수업과 퀴즈 형식의 활동 그리고 야끼소바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영파티에서는 유카타를 착용

건배!



고베여자대학교



올리버씨

윌프씨



고베대학부속 중등교육학교



간사이 복지대학교

HIA 호스트 패밀리분들



히노키하라(檜原)씨
윌프씨의 대학교 전공(양자력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고베여자대학교가 주최한 JAZZ라이브에도 초대 해주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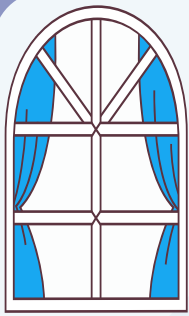
옥스브리지 학생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쿠우치(奥内)씨
윌프씨는 일본의 근대건축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저희들 보다는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미야노(宮野)씨
BBQ, 온천, 쇼핑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밝고 적극적인 올리버씨를 만나 뜻깊은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공생의 창문

한신 지역에서 실시한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실과 이번년도에 개최한 "다문화 공생을 생각하는 연수회"를 소개합니다.

산다 생활 일본어 교실, 지역에서 즐겁게 배워 할 수 있는 일을 늘려보자

HA에서는 호고현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민 분들이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가까운 생활권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지역 일본어 교육 체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각 지역에서 모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신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산다시와 산다시 국제교류협회(SS) 그리고 HA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와논해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개강 2년차를 맞이하는 "산다 생활 일본어 교실"입니다. 이 수업은 일본어 교사와 지역의 학습 자원자가 협동하는 새로운 형식이며 한 쌍을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보기, 분리수거, 방재, 병원, 관공서 등 매체 일상적인 생활을 주제로 본인이 배운 일본어를 구사하여 서로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과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출신지와 일본에 온 이유, 일본어 수준도 다양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모든 참가자를 대응하는 것은 어렵지만 SIA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습 자원자분들이 패어 및 그룹 활동에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 서포트를 진행하여 모든 참가자가 본인에 맞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SIA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오랜 기간 1대 1 학습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어 살롱 수업도 있어 두 가지의 활동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외국인 시민과 지역사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 함께
수업 주제 확인

레저 맵을 통해 과장장소를 확인한다.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등을 질문하며
모두의 공통어인 일본어로 서로를 알아감

실제로 쓰레기를 이용하여 그룹별로
분리수거에 도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하기 위해서

호고현에는 155개국 약 12만 명의 외국인 현민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 외국인 현민 분들을 접할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 현민의 상황과 여러 과제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NPO 등과의 협동을 통해 "다문화 공생을 생각하는 연수회2023"을 개최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 이 연수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강사분들을 통한 강연을 실시하였고 약 32명의 참가자가 문화와 언어, 생활 습관의 차이를 알아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다문화 공생사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8월 16일(수)

제1회 "총론 ~이민 국가 일본의 현실~"

18일(금)

제2회 "레저에서 배우다~다문화를 수용하려는 시도~"

22일(화)

제3회 "교육~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

25일(금)

제4회 "당사자의 힘~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의 활약~"

<「移民」「移民政策」とは?>

【国民・大塚耕平共同代表】首相の定義による「移民」とは何か。

【安倍晋三首相】政府としての定義だが、移民政策とは、国民の人口に比して一定程度のスケールの外国人、およびその家族を期限を設けることなく受け入れることによって国家を維持しようとする政策だ。そういう政策はとらない、ということだ。

(国会党首討論、2018年6月27日)



니하오!(你好!)
(안녕하세요)

Welcome our new CIR !

새로운 국제교류원을 소개합니다



리카씨

니하오! 2023년 4월부터 중국 국제교류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리카(李霞)라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도쿄에서 1년간 교환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 일본에서의 생활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간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매일같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고현 내를 돌리보며 제가 발견한 호고현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 양국 간의 한층 더 깊은 관계와 교류 촉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호고현 국제교류 카라반 프로젝트를 통해 호고현의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카(客家)요리 중에서도 유명한 "계란 만두" 만두 속을 계란으로 얹게 감싸는 것이 특징!

Pick UP!

호고 국제교류 카라반 프로젝트



"국제교류 IN HARIMA" 이벤트에 국제교류원 4명이 참가

하리마초 국제교류협회 공동주최의 교류이벤트 "국제교류 IN HARIMA"에 국제교류원 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호주 국제교류원이 출신 국가, 중국에서 대유행 중인 "광장 댄스" 그리고 한국의 전통 가면극인 "탈춤"을 소개하였으며 참가자분들도 함께 광장 댄스를 댔습니다.

그 이외에도 12개국에서 101명 분들이 참가한 국제교류 이벤트로서 하리마초 ALT분들이 짐바브웨, 인도, 필리핀, 미국을 소개하였고 호고현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을 통한 밴드 연주와 자기소개, 고등학생 관악부의 퍼포먼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자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참가형 이벤트를 통해 다 함께 흥을 출 수 있어 즐거웠다."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호고 국제교류 카라반 프로젝트란?

호고 국제교류단체인연락협의회의 구성단체에서 의뢰를 받을 경우 호고현 국제교류원(CIR)이 현내 각지에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많은 현민 분들이 국제교류원과과의 이벤트를 통해 외국의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https://www.hyogo-ip.or.jp/hcia/csr.html>



한국의 전통가면극 "탈춤"



하리마초 이벤트 참가자분들과